

III. 주요 경제 현안

1. 98년 3/4분기 가계생활지수 조사

□ 개관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전국의 기혼 남녀 971명,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
- 조사 목적 : 일반 가계의 경기, 소득, 소비에 대한 체감 정도 및 향후 예측 조사
- 조사 시기 : 1998년 9월 17~18일 (14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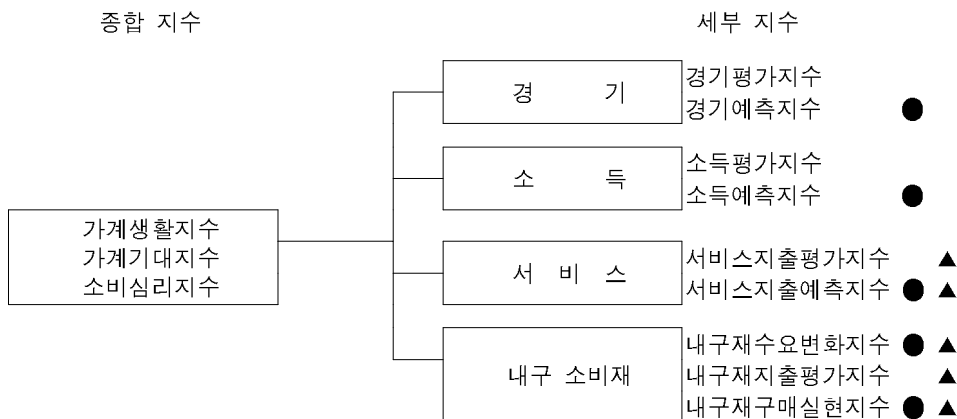
- 가계생활지수의 구성

- (세부 지수) 가계생활지수 조사는 가계 경제와 관련한 총 9개 문항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세부 지수를 산출함¹⁾
- (종합 지수) 조사의 목적에 맞추어 관련 세부 지수들을 가중 평균하여 종합 지수 형태의 가계생활지수, 가계기대지수,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함²⁾

□ 조사 결과

- (종합지수) 지난 조사에서 소폭 상승하였던 가계생활지수는 하반기 이후 실물 경기 침체 심화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급락하며 지수 조사 이후 최저치 기록
- 「가계생활지수」와 경기, 소득, 지출 예측에 대한 종합 평가인 「가계기대지수」는 이번 조사에서 급락하며 지수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소비심리지수」도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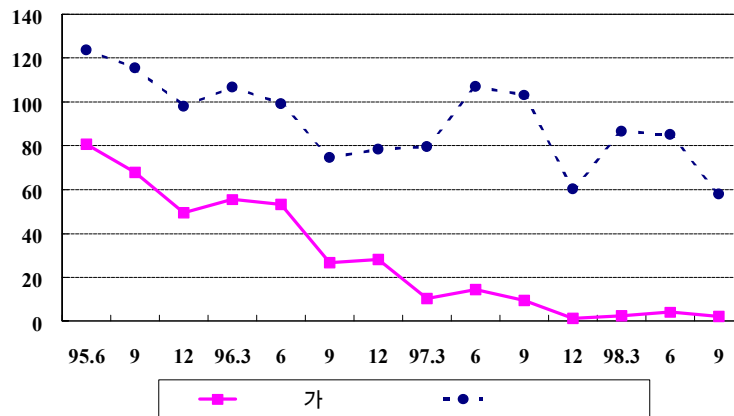
- 1) 산출 방식은 긍정적인 응답에 2, 중립에 1, 부정에 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 한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 따라서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평가, 100 이하이면 부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으나 지수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그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더 유용함
- 2) 가계생활지수 : 종합 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세부 지수들의 가중 평균
 가계기대지수 : 향후 예측과 관련되는 지수들(● 표시)의 가중 평균
 소비심리지수 : 소비 심리와 관련되는 지수들(▲ 표시)의 가중 평균



- (경기) 현재 경기의 평가 및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지난 조사에서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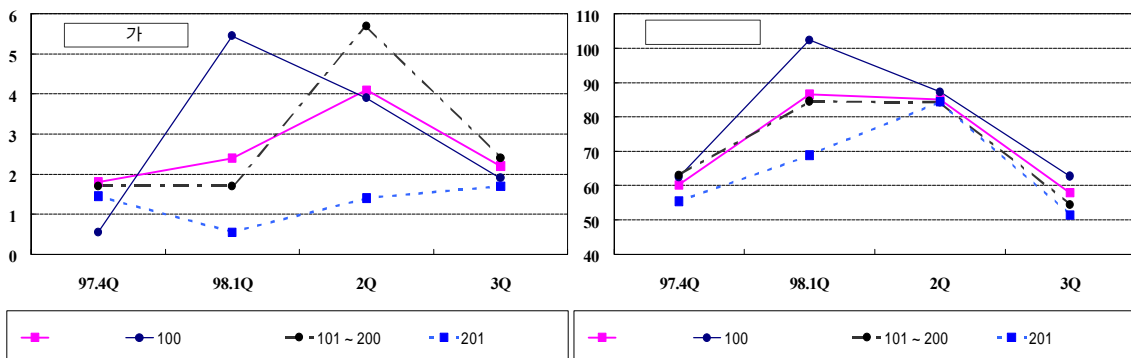
-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인 「경기평가지수」는 2/4분기의 4.4에서 다시 2.2로 하락함. 이는 97년 12월(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1년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예측지수」는 97년 12월(60.2) 이후 올 들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57.9로 급락하여 지수 조사 이후 최저치 기록
- 자산가치 하락과 고용 불안, 소득 감소 등과 함께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며 일반 가계의 체감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경기 관련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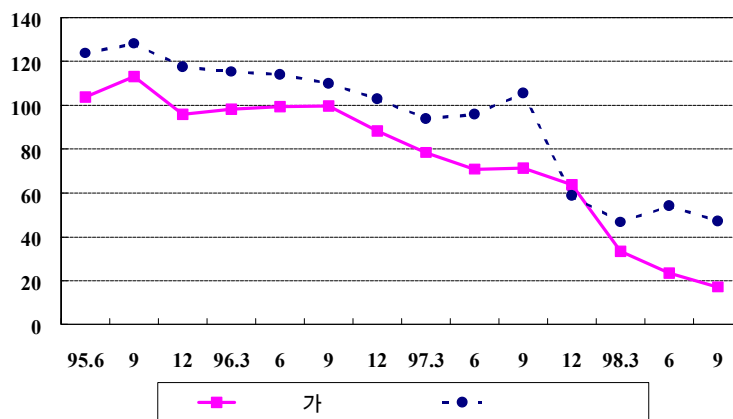
· (소득 계층별) 월 평균 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계층의 경우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가 지난 분기 조사에 비해 다소 개선된 반면, 2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크게 악화됨. 한편 1년 후의 경기에 대한 예측은 월 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난 분기 조사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나타남

< 소득 계층별 경기 관련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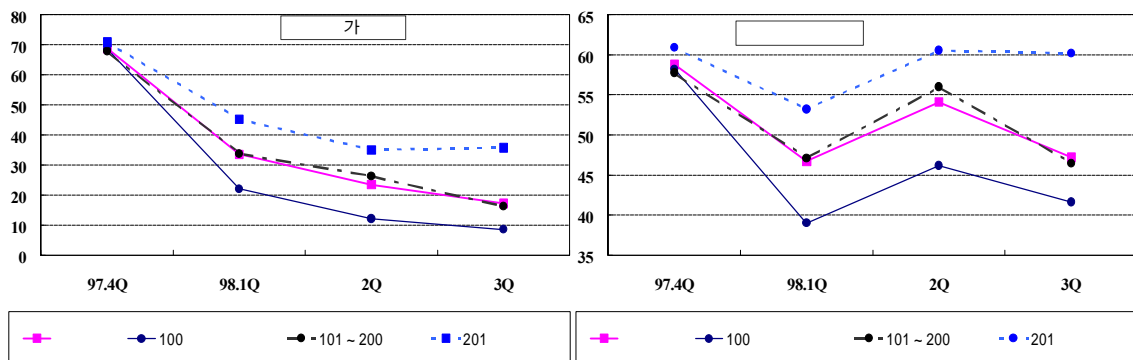
- (소득) 경기에 대한 평가 및 기대가 급락한 가운데 소득에 대한 가계의 평가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지난 1년간의 소득 변화를 평가하는 「소득평가지수」는 17.2를 기록해 지난 6월 조사(23.4)보다 더욱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음
 - 향후 1년간의 소득 변화를 예측하는 「소득예측지수」도 지난 6월 조사(54.1)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47.2로 급락함

< 소득 관련 지수들의 추이 >



- (소득 계층별) 현재 소득에 대한 평가와 1년 후의 소득에 대한 예측에서 모두 월 평균 소득이 201만원 이상인 계층은 지난 분기와 거의 비슷한 반면 2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지난 분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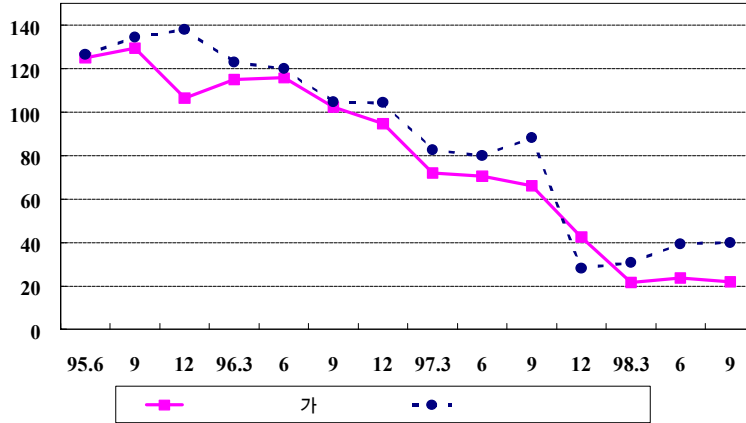
< 월 평균 소득 계층별 소득 관련 지수 추이 >



- (소비) 소비 심리의 위축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서비스 지출과 내구재 구매도 극심한 침체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지출) 지난 6개월간 서비스 지출을 평가하는 「서비스지출평가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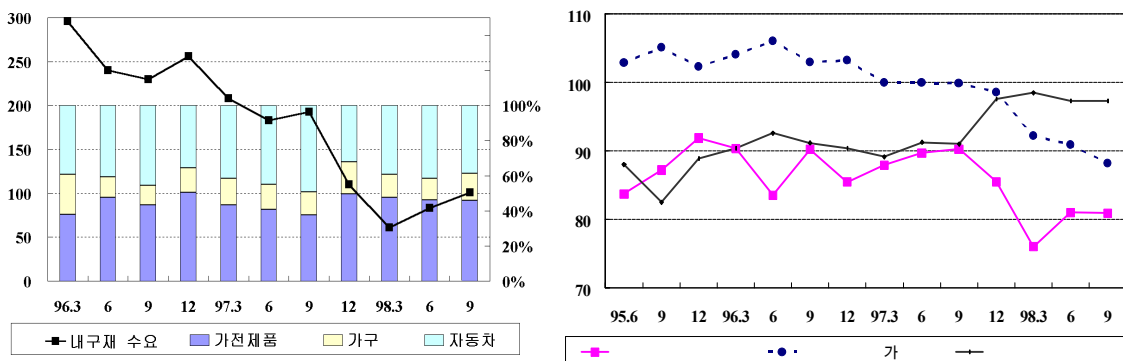
98년중에도 극심한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향후 6개월 동안의 서비스 지출을 예측하는 「서비스지출예측지수」는 상반기에 이어 소폭의 회복세 지속

< 서비스 지출 관련 지수들의 추이 >



· (내구재 수요) 향후 1년동안 내구소비재의 구매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10.1%로 98년 상반기(1/4분기 6.1% → 2/4분기 8.3%)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 향후 내구재 구매 가능성을 나타내는 「내구재수요변화지수」³⁾와 「내구재구매실현지수」는 급락세를 멈추며 정체 상태 유지. 반면 지난 1년 동안의 내구재 구매 계획의 실현 여부를 나타내는 「내구재구매평가지수」는 여전히 하락세 지속

< 내구재 수요 및 항목별 비중 추이 > < 내구재 구매 관련 지수 추이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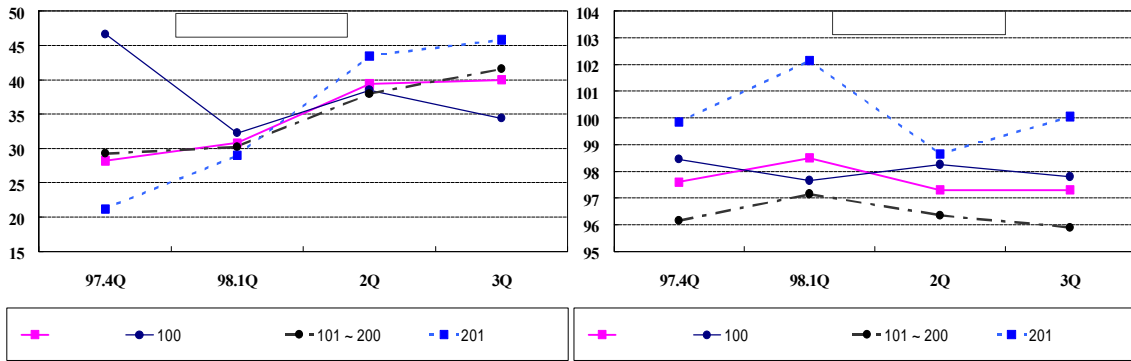


· (소득 계층별) 향후 서비스지출이나 내구재 구매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나타내는

3) 「내구재수요변화지수」는 지난 1년 동안의 내구재 구매 계획 여부와 현재의 내구재 구매 계획 여부를 비교하여 지수화. 「내구재구매실현지수」는 현재의 내구재 구매 계획을 6개월 내에 실현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지수화. 「내구재구매평가지수」: 지난 1년 동안의 내구재 구매 계획을 계획 이후 6개월 이내에 실현하였는가를 평가하여 지수화

지수들의 경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지난 분기에 비해 개선된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지난 분기보다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줌

< 월 평균 소득 계층별 서비스지출 및 내구재 구매 예측 지수 추이 >



□ 결론

- (평가) 체감 경기의 악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계의 향후 6개월내 서비스 및 내구재 소비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지수들은 추가 하락을 멈춤. 이는 소비심리 위축이 향후 6개월 내에 거의 바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
- (체감 경기의 악화) 98년 9월 가계생활지수 조사 결과, 경기 및 소득 관련 지수들이 지수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일반 가계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체감 경기 악화에 따라 일반 가계의 불안심리도 최고조에 달해 향후 소득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심리 위축은 거의 바닥 수준) 체감 경기 및 소득 전망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계의 향후 6개월내 소비 가능성을 나타내는 “서비스 및 내구재 소비 계획과 의지” 관련 지수들은 추가 하락을 멈추고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이 향후 6개월내에 거의 바닥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소비 심리의 위축 둔화가 향후 소비 위축 억제나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함. 소비 심리의 위축 둔화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와 소득 전망 악화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해 실제 소비는 감소세를 지속할 수도 있음
- (소득 계층별 결과) 소비심리 위축의 정체 상태는 고소득계층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 월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 체감

경기 및 소득 전망의 악화가 두드러지며, 이에 따라 향후 소비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추가 하락세를 보임. 이는 실물 경기 침체 심화의 충격이 근로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통해 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

- (시사점) 소비심리의 위축 둔화가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체감 경기 및 소득 전망 악화에 따른 일반 가계의 불안심리를 시급히 해소시켜 주어야 함

- 체감 경기 및 소득 전망 악화에 따른 일반 가계의 불안심리가 지속될 경우 지수 조사 결과 나타난 소비심리의 위축 둔화 현상은, 소비가 추가적으로 위축되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침체 상태가 장기화(L자형)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심리의 위축 둔화가 향후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도록(U자형) 하기 위해서는 불안심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부양책의 추진 계획과 향후 경기 회복 시나리오 등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자신감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재정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경기 부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원을 창출시킴으로써 일반 가계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함
- 아울러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 특소세의 한시적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은 획기적인 감세 조치를 통해 위축세가 둔화되고 있는 일반 가계의 소비 심리가 실제 소비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범구 bkkim@hri.co.kr ☎724-4016)